

다구를 찾아서

16 차의 대중화



아침의 음주관습을 바꾸다

차가 처음 유럽에 전래될 당시 영국은 아침식사부터 술을 마시는 것이 관습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영국 가정에서는 하루 1인당 3리터의 술을 마셨다. 음주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고도적인 이데올로기와 함께 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음료의 출현이 필요했다. 때마침 초콜릿, 커피, 차와 같은 기호품이 멕시코, 아라비아, 중국에서 전래됐다. 이러한 기호품은 유럽의 전통적인 식문화(食文化)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각국에서는 낮은 동양의 음료인 차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차 수입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나라는 독일이었다. 예수회 소속 선교사는 중국인들의 경마른 얼굴은 바로 차를 마시는 것 때문이라며 차를 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의사들이 차의 효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성스러운 허브'라고 찬양한 의사가 있었고, 통증(痛風)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자는 의사가 있었고, 무조건 차를 반대하는 의사도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 의사 니콜라스 툴프(Nicholas Tulp)는 이국적인 음료인 차를 열렬히 옹호했다. 그는 <의학론>에서 '차는 장수음료이며, 육체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차와 비교할 수 없다'며 극찬했다. 영국에서는 차에 대한 반대론보다는 왕실의 음료로, 알코올음료의 대체음료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수용됐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왕실과 상류층의 아침식사 메뉴였던 고기와 술은 차 혹은 커피와 함께 먹는 빵으로 점차 바뀌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자 중산층 가정의 아침식탁에도 술 대신 차가 자리를 메웠다. 차가 점차 영국인의 일상음료로 자리를 잡아갔지만 차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는 차의 밀수를 성행하게 만들었고 '영국산' 가짜 차도 등장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직수입하고 또한 관세를 인하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서민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차의 수요는 더욱 증가해 관세인하만으로는 차값을 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영국인들은 자국영토 안에서 차를 생산하고자 여러

가지 공리를 했다. 동인도 회사는 로버트 포춘(Robert Fortune) 식물학자, 1821~1880)을 중국에 보내 물레 차나무를 인도로 가져오게 하고 동시에 차나무 재배법을 알아오게 했다.

차나무를 옮겨 심으면 차나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몰랐던 포춘의 차나무 수송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운반 상자에 흙을 담고 그 안에 차 씨를 넣어 인도로 운반해 성공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드디어 인도 아삼지역에서 차를 생산해 자국의 차 수요를 충당했다. 그 후 영국은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로 점차 재배지를 확장해 갔다. 한편 18세기 초 독일의 마이센(Meissen)에서 자기(磁器) 생산에 성공하자 그 후 약세기 동안 유럽 각국에서도 자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174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도자기에 전사기법(transfer-printing)으로 문양을 넣는 실험이 행해졌는데 1750년대 영국에서 발전·완성됐다. 손으로 도자기 위에 일일이 그려 넣던 것에서 전사기법으로 인쇄하듯 문양을 찍어 넣음으로써 도자기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1775년경 웨지우드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다기세트는 크림 웨어에 전사기법으로 문양을 넣은 것이다. 영국인 웨지우드(Josiah Wedgwood, 1730~1795)는 1759년 그의 이름을 딴 도자기회사를 차리고 '크림 웨어(cream ware)'를 만들어 조지 3세의 왕비인 샤로트(Duchess Charlotte of Mecklenburg-Strelitz, 1744~1818)에게 바쳤다. 왕비는 매우 마음에 들어 해서 '퀸스 웨어(Queen's ware)'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허락했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차의 대중화가 확실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홍차가 영국민의 음료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중국은 유럽으로의 차와 도자기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중국에는 청나라가 유럽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동아사이언스문화연구소 연구원



웨지우드사 제작, 크림웨어 다기세트 일부.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 다관 높이 24.4c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7 청운사 연발



연발엔 아직 꽃이 없었다. 연잎들만 바람에 넘어지고 있었다. 굵은 빗소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연잎을 따라 다녔고 연발은 파도치는 바다 같았다. 몇 해 전, 백련을 보러 김제 청운사에 갔었다. 꽃은 아직 일러서 작은 연못에 몇 송이가 전부였다. 처마 밑에 앉아 스님이 타주신 차 한 잔을 들고 해가 나기만 기다렸다. 빗

소리에 졸았는지 쯤그리고 앉아 꿈을 꾸었다. 연꽃이 다 필 때까지 기다린다고 연발 옆에다 집을 하나 짓다가 깨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스님이 백련으로 만든 된장이라며 하나 주셔서 차에 싣고 절을 나섰다. 멀리 연발의 연잎들이 바람에 넘어지고 있었다. 굵은 빗소리가 파도소리처럼 들려왔다. 연발 옆에 집 하나 지어놓고 왔다.

옛 판화의 세계

칙명으로 도교의 위경을 불태우다 (勅燒道經)

원나라 때 도공공사 탐인 소연적이 상주해 불교를 비난하고 부처님 말씀을 표찰한 도교의 위경들을 고발하자, 황제가 명해 <도덕경> 2권만 제외하고는 위경들을 불태우게 하는 장면이 삽화로 새겨져 있다. 소연적이 상주하자 이에 황제는 중서성에 명해 우상상 문점, 비서감 우직정일, 천사 장종연과 여러 도류들이 진실과 거짓을 고증하고 아울러 문구를 번열하게 했다.

도경은 그 권질이 수천 집에 달했지만 그 근본과 끝은 오직 <도덕경> 두 편만이 노자가 저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한나라 때의 장도릉과 후위시대에 구경지, 당나라 때 오균·두광정, 송나라 때 왕흥약 등의 무리들이 찬조 연설한 것이었다. 이들은 근거가 없는 말들로서 불교를 비난하고 허망하다고 헐뜯으며 스스로를 높였다. 삼강은 그들의 상주가 옳다고 해 조서로 유시를 내려 전하의 도가의 모든 경은 <도덕경> 두 편만을 남겨 두고 그 나머지 문자와 판본, 화도는 모두 불태우고 이를 숨기는 사람은 벌하게 했다.

원나라 때 도공공사 탐인 소연적이 상주해 불교를 비난하고 부처님 말씀을 표찰한 도교의 위경들을 고발하자, 황제가 명해 <도덕경> 2권만 제외하고는 위경들을 불태우게 하는 장면이 삽화로 새겨져 있다. 소연적이 상주하자 이에 황제는 중서성에 명해 우상상 문점, 비서감 우직정일, 천사 장종연과 여러 도류들이 진실과 거짓을 고증하고 아울러 문구를 번열하게 했다.

도경은 그 권질이 수천 집에 달했지만 그 근본과 끝은 오직 <도덕경> 두 편만이 노자가 저술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한나라 때의 장도릉과 후위시대에 구경지, 당나라 때 오균·두광정, 송나라 때 왕흥약 등의 무리들이 찬조 연설한 것이었다. 이들은 근거가 없는 말들로서 불교를 비난하고 허망하다고 헐뜯으며 스스로를 높였다. 삼강은 그들의 상주가 옳다고 해 조서로 유시를 내려 전하의 도가의 모든 경은 <도덕경> 두 편만을 남겨 두고 그 나머지 문자와 판본, 화도는 모두 불태우고 이를 숨기는 사람은 벌하게 했다.

도가에 몸담은 무리들은 노자의 법을 따라야 하며 만약 불교를 기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보통 민간인이 되는 것을 허기한다고 했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칙소도경(勅燒道經).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18.0cm.

turn'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력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